

평화의 천지(天地) 인간의 개가(凱歌)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8년 1월 26일

제33회 '국제참가학회(SGI)의 날'을 맞아 세계 항구평화를 기원하며 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인간주의'를 시대 정신으로!

더욱더 흥미해지는 글로벌사회

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세기(世紀)'를 넘어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 구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노벨 평화상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라고 하면, 생전에 제가 네 번 만나 대담집을 출판하고(1990년 10월) 유지(遺志)를 받들어 '라이너스 폴링과 20세기'전(展)도 세계 각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한 폴링 박사가 대담집 첫머리에서 "앞으로 세계 정세의 동향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뚫니다. 용기가 솟습니다.

소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리드로 현실에 세계 군축으로 가는 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인류가 처음으로 '이성'과 '도리'에 맞는 길을 걷는 그런 세계를 향해 이제 드디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밝게 전망하셨습니다.

당시 아흔을 눈앞에 둔 평화의 투사의 온화한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후의 동향은 박사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지구일체화)의 불가피한 흐름 속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

계 질서'도 한때는 떠들썩하게 선전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알력으로 순식간에 퇴조해 현재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톱니바퀴를 반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인류 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글로벌사회는 더욱 혼미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모색하는 일이 종종 시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1월 15일~1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문명의 동맹 포럼'¹ 등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는 문화적인 적의(敵意)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여, 75군데 이상 되는 유엔 가맹국과 국제기관이 참가한 이 포럼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명의 동맹'이,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분단의 움직임을 평정케 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이라는 공통의 신념을 함께 갖고 있다."며 평화를 향해 첫발을 내딛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두 회견에서 인간성 중시와 연대 등을 핵심으로 한 문명 정책을 제기한 다음, "20세기의 체제로는 21세기의 세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하여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G8서밋(주요국 정상회의)을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을 더 포함한 'G13'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청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부터 서밋 참가국에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시켜 '책임국 정상회의'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더욱 글로벌한 형태로 책임의 공유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 제안에 깊이 찬동합니다.

'대립'을 뛰어넘는 '대화'의 가교 작업

원리주의로 쏠리는 경향이 도처에

한편 냉전 종결 후에 지향한 '신세계 질서'가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주지하는 바처럼 '자유'

¹ 문명의 동맹 포럼

스페인과 터키 두 나라 총리의 공동제안을 받아 2005년 9월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문명의 동맹'에 관한 하이 레벨 패널'을 개설. 2006년 11월에 정리한 최종 보고의 성과에 입각해 지난달 제1회 포럼을 개최해 '이문화 간 대화에 대한 청년의 대처' 등을 둘러싸고 토론했다.

이며 '민주주의'입니다.

양자 모두 그 자체에 트집잡을 점이 없지만, 일단 이를 서로 다른 정치문화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정한 한도 내에 실현한 곳에서도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전혀 다른 것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이 점에 관해 베를린장벽 붕괴(1989년 11월) 소식을 접한 직후의 SGI제언에서 저는 플라톤의 통찰에 의거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든 '민주주의'든 목적지에 다다라서 '욕망의 대군(大群)'을 낳고, 그 결과 '청년의 혼의 성채(城砦)'가 무너져 버리면 구제할 길 없는 무질서, 카오스를 초래해 끝에 가서는 결국 사태를 수습하고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민주제'는 어쩔 수 없이 '참주제'로 쇠퇴하고²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 경종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금융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은 이음매가 풀린 것과 같이 세계적 규모로 격차가 벌어진 사회를 초래하고, 배금주의와 불공평 의식을 만연케 하며 이를 한 원인(최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으로 삼는 테러 행위는 오로지 확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테러나 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알아내어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 하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힘에 의거한 질서는 오히려 무질서, 카오스에 가깝습니다.

제가 불법자(佛法者)로서 가장 염려하는 점은 이러한 풍조에 편승하여 '원리주의'로 쓸리고 있는 요즈음의 현상과 심성(心性)이 곳곳에서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풍문이 돌고 있는 종교적 원리주의에 한하지 않고, 민족이나 인종에 관련된 에스노센트리즘(자민족 중심주의)과 소비니즘(배외적 애국주의), 레이시즘(인종주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교조), 또는 시장 원리주의에 이르기까지 카오스를 틈타 거리낌 없이 횡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모든 일에 '원리' '원칙'이 '인간'보다 우선하고 선행(先行)하여, '인간'은 그 하인이 되어

² '참주제(僭主制)'의 쇠퇴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치체제 본연의 모습을 ①왕제(王制) ②명예제(名譽制) ③과두제(寡頭制) ④민주제(民主制) ⑤참주제 다섯 가지로 분류. 그리고 민주제라는 '가장 고도한 자유'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숙명적인 내부 모순으로 참주제라는 '가장 야만적인 예속'으로 쇠퇴하고 만다는 '자유'의 배리(背理)'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내린 세세한 정의(定義)는 차치하고 그러한 원리주의로 쏠리는 경향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원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칙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원칙이 인간을 위해 있지 결코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이 철칙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칫하면 손쉬운 해답이 나와 있는 원리·원칙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시몬 베유의 비유를 빌리자면, 인간이나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중력’에 이끌려 인간성의 핵이라고 해야 할 ‘그대 자신’은 어딘가에 매몰해 버립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인간주의는 그러한 원리주의로 쏠리는 경향과 대치하여, 그것을 제지하고 끊임 없는 정신 투쟁으로 자신을 단련해 인간에게 주역의 자리를 되돌리려는 인간복권(復權) 운동입니다.

사면초가에서도 신념을 관철한 지드

이에 원리주의와 인간주의의 대치라는 점에서 잊지 못할 유명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 상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는 희대의 휴머니스트인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와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얽힌 것입니다.

1936년 6월 경애하는 M. 고리키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지드는 급히 모스크바로 달려가지만 그 다음 날 고리키는 사망합니다. 장례식과 일련의 행사를 마친 후, 전부터 희망한 바도 있어 한 달 정도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그 감상을 11월 상순에 ‘소비에트 여행기’로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출판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 각국이나 일본에서도 역사적이라고 할 정도로 몹시 떠들썩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는 지드가 러시아 혁명과 그 후 소련의 발자취에 역사적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숨바꼭질하듯 보였다 안 보였다 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병리에 대해, 오늘날 보면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날카롭게 정곡을 찌른 내용임은 소련이 붕괴하

고 난 현재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붉은 30년대'라 일컬어지고 전체주의와 싸우는 스페인 내전³의 영향까지 받아 많은 지식인과 청년이 한꺼번에 좌익으로 쏠려 소련을 향해 희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좌익의 일원이라 여겨진 지드의 경고는 학계와 저널리즘의 세계, 정계를 끌어들이는 일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해도 대다수는 '반대'였으며 그 중에는 지드를 배신자 취급하는 자도 많아, 지드는 고립무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면초가 속에서도 지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성실하려고 하는 일점을 확인하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도 소비에트보다도 훨씬 중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인류이자 그 운명이며 그 문화다."

인간을 강하게, 선하게, 현명하게 만드는 종교의 휴머니제이션

인간주의에 입각한 보편적인 토대

지드가 거창한 표현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명쾌하고 요점적인, 실로 인간주의 선언이라고 할 역사적인 말입니다.

지드에게 휴머니티는 오늘날 낡고 완전히 손때 묻어 그다지 공감을 주지 못하게 된 휴머니즘이 가져오는 어감과는 다르고 극도로 완벽하게 도야된, 아니 그밖에 달리 정의(正義)의 근거를 찾을 수조차 없는 보편적인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라고 술회했듯이 목숨을 바쳐 옹호해도 좋을 '문화'는 자타를 존중하고 차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유와 공정, 관용 등의 정신적 유산으로 뒷받침된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그 신념이 바로 시류에 맞선 불굴의 정신투쟁을 지탱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휴머니티의 보편적인 확대는 불전에 설해진 "법성(法性)의 연저(淵底)·현종(玄宗)의 극지(極地)"(일체제법이 근거로 삼는 근본적인 진리)를 연상케 합니다.

³ 스페인 내전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에서 일어난 내전. 소련이 인민전선을 지원하고 파시즘 진영의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반란군을 지원했다. 이에 개입하는 형태로 파시즘에 반기(反旗)를 든 '국제여단'이 조직되어, 헤밍웨이와 앙드레 말로를 비롯해 각국 지식인과 노동자가 의용병으로 참가했다.

불법을 기조로 하는 인간주의는 그 보편적인 토대 -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佛性), 즉 금강불괴와 같고 청정하며 무구한 심성을 '심연대(心蓮臺: 부처가 앉아 있는 연화의 대좌)'라 명명한 것은 보편적인 토대나 근거를 좋게 이미지화합니다 - 를 벗어나지 않고 종파성은 물론이고 모든 주의·주장의 차이,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 사회를 구성하는 위계질서의 순역(順逆) 등을 상대화하여 올바르게 다시 구축할 것을 본령(本領)으로 합니다. '원리'가 아니라 '인간'이 주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전에서는 "그러므로 팔만사천의 법장(法藏)은 자신 일인(一人)의 일기문서로다. 이 팔만 법장을 나의 심중(心中)에 내포하여 갖고, 품어 가졌노라. 나의 신중(身中)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와 법과 정토(淨土)를 내 몸 밖에서 생각하고 원하며 구함을 미혹이라 하고 이 마음이 선악의 연을 만나 선악의 법을 만들어 내느니라."(어서 563~564쪽)고 했습니다.

'팔만사천의 법장'이란 직접적으로는 석존 일대의 설법을 가리킵니다만, 덧붙이자면 '차이'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경지를 찾아내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로 귀착합니다. 출발점임과 동시에 궁극적인 것입니다. 모든 원리주의는 그 점이 전도되어 어긋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의 노예가 된 약소함

반세기도 훨씬 전에 프랑스의 휴머니즘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와타나베 가즈오(당시 도쿄대 교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불어 닥친 광신(원리지상주의)의 폭풍을 회고하면서 '종교의 휴머나이제이션(Humanization)'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새로운 루터나 새로운 칼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묘한 표현이지만 그 길은 종교의 휴머나이제이션밖에 없다. 그리고 종교의 휴머나이제이션은 '아편'적인 것을 스스로 모두 버리고, 신조차도 인간을 위해 존재함을 인지하며 자신이 만든 것의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되기 쉬운 인간의 약소함에 대해 자신도 반성하고 타인도 반성하도록 가르쳐 르네상스 시기 이래 인간이 획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천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그 이후와 그리고 요즘의 종교 사정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아직도 미완성의 물음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리주의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까닭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미완성인 채로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평화를 구축하는 원동력은커녕 전쟁이나 분쟁의 가담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라는 제목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두 번째 강연(1993년 9월)에서 종교를 갖는 것이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가.' '선하게 만드는가, 악하게 만드는가.' 또 '현명하게 만드는가, 어리석게 만드는가.'라는 관점을 종파성을 초월하여 도입해야만 한다고 자계(自戒)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종교가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며 '현명하게' 만들도록 촉구하고 후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휴머니제이션'과 거의 뜻이 같습니다.

위셀 씨의 양심에서 나온 외침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셀 씨는 교조주의나 원리주의를 따라다니는 광신과 증오를 응시하며 자신이 창설한 인도(人道)재단이 중심이 되어 '증오의 분석'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최하셨습니다.

위셀 씨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광신에 끌리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또 이러한 유혹에 홀리지 않도록 종교에 면역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동기를 언급하며,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만이 광신과 증오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뿐이다. 인간만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침이자, 종교의 휴머니제이션에 대한 절실한 기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소년 시절에 아우슈비츠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였으며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나치즘이라는 최악의 원리주의 지옥을 빠져 나온 사람의 말인 만큼, 인류사가 직면한 쉽지 않은 과제를 실감케 해 주는 무게와 여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난제(아포리아)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종파성만 고집하면 종교가 인간의 정신성을 '악하게' '악하게'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고 '아편적인 존재'를 증장시켜 오히려 전쟁이나 소란을 조장하며 박차를 가하고 맙니다.

위셀 씨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이른바 '원리주의로 쓸리는 경향'이며 굳이 실례를 들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새겨진 종교의 어두운 부분, 마이너스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미완성의 물음'이라고 했듯이 '종교의 휴머니제이션'은 21세기인 오늘날 아직도 넘어야만 할 장애물로 우리 눈앞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사의 명암을 대차대조표로 어떻게 그릴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1세기 문명과 종교 본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종교는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광신과 증오의 증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역사가 미술레가 제기한 종교관

그 점에서 저는 이전부터 19세기 대역사가 쥘 미술레의 종교관을 주시했습니다. 미술레가 살았던 시대는 오리엔트 르네상스라고 불렀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발견하고 다시 부흥시킨 르네상스에 이어서 인도와 페르시아 등을 포함한 오리엔트(동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유럽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 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정신은 어딘지 모르게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과 흡사한 분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레는 저서 《인류의 성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전선(電線)을 통해 지구상의 혼(魂)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로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대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 여러 시대를 서로 잘 대응시켜 우애 넘친 과거를 공유했다는 감각을 주고, 지상의 혼이 똑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깨닫는 기쁨을 준다!”

“전선을 통해...” 등과 같은 표현은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를 연상케 합니다만, 무엇보다 19세기 전 반이라면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새벽이자 '요람기'입니다. 미술레의 개인적 자질까지 더해져 문명

의 프런티어, 확대되는 세계상(世界像)에 대한 기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무한대이며 거의 무조건에 가깝습니다.

30년도 훨씬 전에 로마클럽이 보고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경고했듯이 근대문명의 '황혼기'에 처해 있는 우리 시대와는 그 점에서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급속하게 진보하는 네트워크 사회에 감도는 일종의 속수무책의 느낌은, 정보과학이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확대가 그대로 "지구상의 혼이 ... 하나로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낙관론이 현재 상황에는 전무(全無)에 가깝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레가 살았던 시대는 유럽인이 자신들의 문명을 계속 상대화하면서도 아니, 상대화한 까닭에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의 보편적인 확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행복한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정신은 미술레의 종교관에도 여실히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종교의 휴머니제이션' 그 자체입니다.

'인류의 성서'는, 미술레가 "진정한 저자, 그것은 인류다."고 했듯이 '신·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인도의 '베다'나 '라마야나', 고대 그리스의 영웅 서사시나 고전극, 페르시아의 '샤나메', 또는 이집트와 시리아 등 한자문화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명권의 '성전(성서)'을 두루 섭렵한 것으로, 그러한 것을 과부족이 없이 비교 검증한 토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담하고도 명쾌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정신활동이 종교를 포함하는 것이지, 종교 속에 정신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해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보다 선행하는 모든 종교적 요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제이션'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완벽한 일치, 아득히 먼 옛 시대와 우리 시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략) 그러므로 유일한 인류는 유일한 마음이 있을 뿐,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음을 알았다. 공간과 시간을 일관하는 위대한 조화가 영원히 복원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악은 보고만 있지 말고 철저히 투쟁한다

인간이 바로 역사 창출의 주역

자기 규율에 의거한 인간 찬가

인간 불신이나 폐색감(閉塞感)이 편만한 현대에서 보면 참으로 깊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분명 그것은 근대 문명의 '새벽' '요람' 시대의 유토피아적이라고 할까, 매우 대범하고 낙관적인 인간관, 인간 찬가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성 개화의 계보를 고대 인도나 그리스의 인간관에서 중세의 '암흑시대'를 거쳐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자유·평등·우애)으로 더듬어 가는 미슐레의 기대와 전망을 그 후의 역사가 크게 저버린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세기에 두 차례나 일어난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의 참극을 경험하고 지식과 과학기술이 방심할 수 없는 '양날 검'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친 우리로서는 거의 무책임한 그러한 낙관론에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지난 세기말 소련의 붕괴가 프랑스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으로 더듬어 가는 진보주의적 역사관에 종지부를 찍은 일도 우리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욕물과 함께 아이마저 버리고 마는'(독일 속담)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슐레가 "제발 '인간'으로 있도록 하자. 들어 본 적이 없는, 인류의 새로운 위대함으로 더욱 위대해지자."고 주장했듯이 인간이 원점이며 인간이 바로 종교를 포함한 역사 창출의 주역이어야 한다는 기본 자세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인간주의 투쟁의 성공 여부도 그 자세를 공유하며 어떻게 심화하고 계승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필할 만한 것은, 미슐레의 인간 찬가는 오늘날의 휴머니즘이라는 단어에 얽힌 애매함과 기본 골격이 없는 정서적인 취약함과 관계가 먼 다이너미즘을 지닌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해방과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에고이즘의 한없는 확대에 거의 무방비였던 그 후의 휴머니즘의 변천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정신의 규범성, 자기 규율이라는 점에서도 하나의 굵은 뼈대를 지닌 점입니다.

《인류의 성서》 끝머리에는 "인도에서 1789년까지 빛의 격류가 흘러 내려온다. '법'과 '이성'의 큰 강이다."라는 인류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 자연과 역사의 견고한 기반에 따른 영원한 '정의'가 빛난다."라며 '법' '이성' '정의'를 근거로, 또 중심 사상으로도 삼으며 스스로를 규율하고 재창조해 역사 창출의 주역이라는 자각과 자부를 힘차게 주장했습니다. 대범한 인간 찬가가 '원심력'이라면 그것은 '구심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균

형을 유지해야 비로소 인간의 혼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슐레가 말하는 '법'과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그것은 불교에서 설하는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와 비슷한 구도(構圖)를 갖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처(依處)로 삼되 다른 사람을 의처로 삼지 말아야 한다. 법을 주로 하고 법을 의처로 삼되 다른 것을 의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인간(주역)이 되려면 무엇인가 의존해야 할 '법'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부분적인 '정의'의 유혹을 초월하고

그러나 역사는 미슐레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와타나베 가즈오는 '자신이 만든 것의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되기 쉬운 인간의 약소함'을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그 자신을 배반하는 것"(G.마르셀)이라는 말처럼, 역사 창출의 주역이 되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 '약소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굴러 떨어져,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절대화와 광신에서 발단한 전쟁과 폭력의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미슐레가 말하는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라, 온갖 차원의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정의'가 인간의 '약소함'을 이용하도록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서로 싸우며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리주의로 쏠리는 경향'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분적 '정의' 앞에 어떤 비참이 기다리는지를 모르고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주의로 쏠리는 경향'을 멈추게 하려면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주의는 약과 투쟁을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평화, 관용, 원만함과 같은 플러스 이미지와 아울러 미온적임과 같은 마이너스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걸음 더 뚫고 나가지 않으면 원리주의 특유의 과격함에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치즘과 계속 투쟁한 토마스 만은 그것을 '전투적인 휴머니즘'이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전투적인 휴머니즘이다. 그것은 자신의 용감성을 발견하여 자유와 관용 및 회의(懷疑)의 원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회의하지도 않는 광신으로 악용되거나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견해로 일관된 휴머니즘이다."

이와 관련해 와타나베 가즈오는 토마스 만이 쓴 그 소책자를 “격동기를 사는 내게 ‘머리맡에 두는 책’이기도 하면서 ‘잡낭에 넣는 책’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투적인 휴머니즘은 사실 지드가 ‘정당한 휴머니즘’으로서 열렬한 성원을 보냈듯이, 지드가 “나보다도 소비에트보다도 훨씬 중대한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와 정의의 근거로 삼은 ‘휴머니티’와 같은 근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것은 불법(佛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에 따른 정신 투쟁의 참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불교 운동이 현재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각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까닭도 그것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가 종파성과 종교원리를 초월한 보편적인 확대를 가져서 다름 아닌 ‘종교의 휴머니제이션’이라는 문명사적 과제의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단의 세계를 하나로 맺는 대화의 만파(萬波)를 민중의 손으로!

언론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을 싫어하는 것과 근원이 같다

그런데 휴머니즘을 말하는 한, 가장 큰 무기이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대화, 즉 인류사와 아울러 오래되고도 새로운 과제이자 지속적인 대화에 귀착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대화적 존재’라는 점은 인간 본질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대화가 두절되는 일은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실격이며 대화가 없는 사회는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래 전 소크라테스는 “무릇 사람의 마음이 빠질 수 있는 여러 상태 중에서 언론을 몹시 싫어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며 언론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근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를 들면, 지난해 서거한 독일의 석학 칼 폰 바이츠제커 씨(SGI 회장이 회담한 독일 전〈前〉 대통령의 말형)가 “인간은 함께 살기 위한 인생의 대화자(對話者)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것은 언론이나 대화가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건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되려면, 요컨대 예지인(호모 사피엔스)이 되려면 아울러 언어인(호모 로스)으로서 대화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와 반대인 광신이나 불관용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종교 분야에서는 도그마를 배제하고 자기 억제와 이성이 뒷받침된 대화가 확실히 생명선이며, 대화에 등을 돌리는 일은 종교의 자살 행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를 추진하는 데 아무리 광신이나 독선, 불신과 같은 대화불능(원리주의)의 벽이 가로막는다 해도 대화가 바로 인간주의의 '황금률'이라는 깃발만큼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중에 두절해서는 대화라 할 수 없으며 진정한 대화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대화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호모로스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끊임없는 정신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강함' '선량함' '현명함'과 같은 아름다운 바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는 이러한 아름다운 바탕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동력이어야 합니다. 즉 '인간혁명의 종교'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도 이 점을 언급하며 21세기 문명에 공헌해야 할 대승불교의 정수(精髓)를 논했습니다.

거의 50권에 달하는 대담집

저는, 대화는 종교의 생명선이며 황금률이라는 신념에 입각해 지금까지 식자와 요인 7000여 명과 회담하고, 토인비 박사를 비롯해 거의 50권에 달하는 대담집을 출간했습니다.

대담을 나눈 분 중에는 기독교 문명권이나 유교 문명권 사람도 많습니다. 종래 비교적 일본과 교류가 적은 이슬람이나 힌두교 문명권 사람도, 구(舊) 공산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문계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천문학 등 이과와 수학계 식자도 있습니다.

불전에 "무량(無量)의(無量義)는 일법(一法)에서 생긴다."고 있듯이 국경을 초월하고, 종파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인종과 민족, 학문 간의 장벽을 초월하면서 불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에 준하여 다른 분야를 서로 이어 주는 대화를 착실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까닭은 보편적 휴머니즘을 시대정신으로 고양하여 21세기 문명에 기여하고자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7년 전 동시다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유럽과학예술아카데미가 개최하기 시작한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대표가 참석하는 '4대(大) 종교 간 대화'에 우리 SGI도 계속 참가하여 평화에 공헌하는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창립한 동양철학연구소와 보스턴21세기센터,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도 '문명 간 대화'와 '종교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세계 환경 기구'를 유엔에 창설

계속해서 이 인간주의를 기반으로, 지금 세계가 직면한 모든 과제를 극복할 방도를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에 의거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다.”라는 숭고한 구절을 전문으로 내걸고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자유권과 사회권을 정한 이 선언은 그 후 각국 정책에 영향을 끼쳐, 인권에 관한 모든 조약과 제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고,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을 향한 비전과 '공포와 결핍이 없는 세계의 도래'를 목표로 내걸고, 전쟁 후 재출발하는 세계에 유엔헌장과 나란히 '인류 공화(共和)를 위한 지침'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인권선언이 표방하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성'이라는 가로축에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미래에 걸친 인간의 행복을 전망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지구사회를 구축할 '세대를 초월한 책임'이라는 세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구 생태계 보전' '인간의 존엄' '부전(不戰) 제도화'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언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두 가지 리포트

첫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난해 최신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한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지구환경 전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개선된 지역도 있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연 200만 명 이상의 사기(死期)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고,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 주는 오존층의 파괴가 심해져 남극 상공에 생긴 구멍이 과거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량은 지구 규모로 감소하여 생물의 다양성 면에서도 1만 60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적 단순한 문제는 각지에서 대처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대책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⁴이 정리한 '제4차 평가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해 지난 50년 동안의 온난화 경향은 과거 100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21세기 말에는 최대 6.4도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북극의 빙산, 빙하는 계속 녹게 되고 아울러 심한 더위나 열파(熱波), 큰비 등의 이상(異常)기상 발생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앞으로 인간의 존재 기반이 현저히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서밋에서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의제로 올라 지난해 9월에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가 유엔에서 열리는 등, 환경문제가 긴급하다는 인식은 해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행동한다는 면에서는 아직 과제는 큼니다.

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기상 기구(WMO)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 과학적 관찰에 근거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4차 평가보고서 작성에는 130개국 이상에서 전문가 약 4000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앨 고어 미국 전(前)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지구에 산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지구 생태계 보전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며 '같은 지구에 산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한 자각과 책임감이 없으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은 지역에 뿌리 내린 '향토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세계를 인생의 무대로 하는 '세계민'이라는 세 가지 자각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집착하지 않고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서 '열린 인류 의식'의 함양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SGI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을 제창하는데 근거에 둔 이념이고 관계 기관이나 다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실현을 위해 힘써 온 이유입니다.

지금 이 바로 '지구의 이익' '인류의 이익'에 입각한 협조가 필요하며 유엔이 그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UNEP를 통해 환경문제 대처 촉진과 조정을 도모했습니다. 더욱이 UNEP는 환경과 관련된 많은 조약사무국의 역할을 겸하는 외에도 여섯 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근거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문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려면 UNEP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급 환경포럼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과학적 지견의 집적과 분석 그리고 환경조약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중요성이 지적되는 한편, UNEP를 유엔의 전문 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도 이전부터 유엔이 21세기에 담당해야 할 주요 활동은 지구환경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상으로 6년 전에 '유엔환경고등판무관' 설치를 주장했는데 그 주안점은 유엔이 중심이 되어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발휘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UNEP가 담당한 기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감안하면서 '세계 환경 기구'라는 전문 기관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전문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UNEP에서 하는 논의나 의사 결정에 이사국만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전문 기관일 경우에는 그 가맹국이면 어느 나라든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전에 제창한 '환경 유엔'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최근 주장되는 '국제환경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면에서는 모든 나라가 참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에너지 절약의 '모델 지역'으로

다음으로 초점이 되고 있는 온난화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서밋에서 2050년까지 세계 온실효과 가스 반감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온실효과 가스를 삭감할 방도는 교토의정서에 입각한 2012년까지의 틀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50% 삭감을 달성하려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참가한 전 지구적인 체제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지난달(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체약당사국회의가 열려 2013년 이후의 틀을 만드는 교섭의 공정표 '발리 로드맵'⁵을 채택했습니다.

삭감의 목표 수치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하여 온난화 방지의 새로운 틀 만들기를 지향하는 체제가 갖춰진 것은 어느 정도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발리 로드맵'에 입각한 교섭을 추진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전체적인 목표 달성보다도 얼마나 자국의 의무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지에 역점을 두는 마이너스 사고의 발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⁵ 발리 로드맵

격심한 논쟁 속에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채택된 공정표인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특별작업부회를 설치하고, 내년 제15회 체약당사국회의 때까지 목표수치도 실현 가능한 새로운 삭감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검토 항목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 방지 지원과 기술 이전, 새로운 자금책의 검토, 삼림 감소 대책 등을 포함시켰다.

주요국이 출선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타국의 대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공헌을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한다면 '협력'과 '연대'를 키워드로 한 온난화 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각국이 국익을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에 중 지부를 찍고, 서로 플러스 영향을 주며 공존공영하는 세계를 건설할 방도로 '인도적 경쟁'이라는 비전을 제창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계기로 이 '인도적 경쟁'의 시대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7월에 열리는 도야호 서밋의 의장국이기도 한 일본이 그런 플러스 사고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시대 변혁의 선두에 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특히 자발적인 목표와 공헌이라는 플러스 사고의 발상에 친숙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과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저탄소·순환형 사회'로 이행하는 접근법을 들고 싶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온난화 대책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를 가맹국에 의무시하여 현재 EU 전체에서 6.5%에 이르는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탄소·순환형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열쇠는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실적을 쌓은 일본이 이웃 여러 나라와 제휴하여 동아시아를 '에너지 절약 추진 모델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난해 제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향해 기반이 될 지역 협력의 파일럿 모델로 '동아시아환경개발기구' 창설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난화를 방지하는 인도적 경쟁'을

민중의 힘 결집해 '아래에서 일으키는 개혁'을

이러한 제도 정비와 아울러 민중 차원의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 제정을 외쳤을 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를 정비하는 '위에서 일으키는 개혁'뿐만 아니라, 풀 뿌리 차원에서 행동의 폭을 넓혀 자각한 민중의 힘을 결집하는 '아래에서 일으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활동의 주요 분야로 교육에 주목한 것은 교육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한없는 가능성을 끌어내 각자의 지역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규모로 시대 변혁의 물결을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SGI에서는 2005년 연초부터 '교육 10개년'을 지원해 교육교재로 영화 '조용한 혁명'을 지구평의회, UNEP, 유엔개발계획과 협력해 제작했으며 지구헌장 위원회와 공동 제작한 '변혁의 종자'전을 각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앞서 내가 창립한 보스턴21세기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과 지침을 정리한 '지구헌장' 기초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더욱이 브라질SGI가 자연보호 활동으로 '열대우림 재생 연구 프로젝트'를 1993년부터 전개해 아마존강 유역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식목과 귀중한 종자를 채취·보존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캐나다와 필리핀 등 각국 SGI에서도 식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식목 활동의 의의를 주제로 그린벨트 운동의 지도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박사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대 인도에서 석존이 나무를 심는 일은 중요하다고 설한 사실,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와 자비의 정치를 펼친 아소카 대왕이 가로수를 심는 등 환경보호 정책에 노력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능력 개화)가 진척된 사실에 입각해, '나무를 심는 일'은 '생명을 심는 일'이며 '미래'와 '평화'를 키운다는 데 서로 공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교육 10개년'을 결실하려면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식목 활동과 같은 실제 체험을 통해 자기를 둘러싼 생태계의 존귀함을 체감하고 그것을 지키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UNEP는 현재 마타이 박사 등의 후원을 받아 '10억 그루 식수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 세계에 무려 19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올해도 10억 그루 이상을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캠페인을 앞으로도 '교육 10개년'과 연동해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 10개년'이 궤도에 오르고, 지구환경 악화를 막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면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나 직장 등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대화하고 함께 행동을 시작하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대응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 네트워크'라고 부르며 환경 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권, 평화 문제 등 개별적인 대응을 잇는 횡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인류가 함께 대처하는 발판을 견고히 하면 어떨지요.

우리 SGI도 '아래에서 일으키는 개혁'을 지구 규모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인권교육 주제로 국제회의 개최를

정신적 연대가 항구평화의 주춧돌

둘째는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나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 아타이데 브라질문학아카데미 전 총재와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재가 당시를 회고하며 말씀하신 대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직면한 숭한 난문제를 숙고하며 내가 특히 유의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세계 각 민족 사이에 '정신적인 유대'를 조성하는 일, 다시 말해 '정신의 세계성'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경제나 정치적인 유대처럼 상황에 따라 무너져 버리는 관계는 항구 평화의 기반으로 하기에는 매우 약하다, 그보다 훨씬 숭고하고 폭넓으며 견고하게 인류를 연결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불가결하다는 신념에 입각해 검토 작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인 올해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를 중심으로 인권선언의 의의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권교육 보급 등 구체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개년’(1995~ 2004년)에 이어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난 2001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반(反)인종주의·차별 철폐 세계회의’에 보낸 제언 등에서 이런 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존중을 정부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 ‘인간의 존엄’의 기반으로 깊이 뿌리내려 세계 공통의 ‘인권문화’로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인권교육과 학습 추진’은 유엔 개혁에 따라 새롭게 발족한 인권이사회에서도 총회 의결에 입각해 하나의 주요 임무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유엔 선언’ 초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언이 채택되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상 인권 기준에 새로운 문서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선언의 초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 뿌리내린 ‘인권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관점과 요망 등에 충분히 부응한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선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도록 나는 강하게 요망합니다.

인권교육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별 회의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회의가 열린 적은 있습니다만,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민사회 주도’로 시민사회를 위해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국제회의’를 세계 규모로 조기에 개최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회의에서는 새로운 유엔선언과 관련된 논의에 덧붙여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생명을 위한 물’ 세계 기금 설치를

다음은 유엔이 추진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 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생활기반과 사회기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그 반환점을 맞아 그 동안의 진척 상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취학률이 상승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과 어린이 사망률 등이 개선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런 속도라면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영국 브라운 총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가나 등 각국 정상이 서명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정치적인 의사를 지니고,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개혁이 충분한 자원(財源)과 하나 되는 체제’를 조기에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엔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를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개년”으로 정하고, 올해를 ‘국제 위생의 해’로 정한 사실에 비추어 안전한 물 확보와 위생환경 정비를 축으로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개혁이 충분한 자원과 하나 되는 체제’ 확립을 목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얻을 권리를 거부당하고, 26억이 충분한 위생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대략 180만 명의 어린이가 설사나 그 밖의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부득이하게 물을 길어야 하므로, 고용이나 교육의 ‘젠더 불평등(성별 격차)’이 확대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물과 위생설비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건강 불량 등이 더해져 경제적인 불평등이 고정화되고, 사람들을 ‘빈곤의 연쇄’로 가두고 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도 ‘물과 위생에 관한 위기 극복은 21세기 전반의 중요한 인간 개발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그 대책이 성공하면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에 틀림없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과 위생설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군사 지출의 약 8일분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의 추가자금이 해마다 필요해진다고 추산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좁은 범위의 개념은 제외하고 인간의 안전보장 향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소액일지라도 군사지출을 물과 위생설비 투자로 돌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이미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한 자금적인 틀이 성과를 거둔 예로 2002년에 설립한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이나 질병마다 사전예산을 할당하지 않고 각국의 요구에 부응한 계획을 세우며 심사를 거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주도권'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또 운영하는 이사회는 각국 대표 이외에 민간 할당 지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NGO, 감염자 단체 대표를 더해 동등한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특색과 비슷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틀로 "'생명을 위한 물' 세계기금"을 창설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협받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설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는 2년 전부터 '인간 개발, 지역 분쟁, 글로벌 거버넌스(지구 사회 운영)'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인간 개발' 개념과 더불어 '인간 안전보장' 개념을 선구적으로 제창한 인물로 알려지는 마블을 하크 박사는 도다평화연구소가 설립 때부터 펼치는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입니다.

박사는 일찍이 도다평화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회의 기조연설(1997년 6월)에서 "인간 안전보장의 새로운 과제는 비극적인 결과가 야기된 하류에서 대치하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난 근원인 상류에서 대처하는 편이 용이하고 인간적이다."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는 또 인간 안전보장을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 '만연하지 않은 병'처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생활에 반영되는 안전보장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관련된 계획은, 목표 달성은 물론 비극에 시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 이 마음은 내 스승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스승의 평화사상을 근본으로 출발한 도다평화연구소는 앞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비롯해 ‘인간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지구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와 연구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청년을 육성 지원하고, 아프리카의 세기’ 기수로

비극의 유전을 전환하는 새로운 조류

다음은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지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특히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자 아프리카의 항구적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적 존재가 아프리카연합(AU)입니다.

종래 아프리카통일기구(OAU)를 개편해 2002년 7월에 발족한 AU는 53개국이 가맹한 세계 최대 지역 기구입니다. 최고 기구인 총회(정상회의)와 각 가맹국 대표로 구성된 전(全) 아프리카의회에 더해 지금까지 평화·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문화이사회,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등을 잇달아 설치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21세기는 아프리카의 세기’라는 신념으로 각국 정상이나 식자 등과 대화를 거듭하고 민중 차원의 문화교류와 교육교류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AU의 도전이 착실히 성공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프리카 재생’이 바로 ‘세계 재생’이며 또 ‘인류 재생’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걸쳐 인류의 비극이 유전된 역사를 바꿔 놓을 새로운 조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겨났습니다.

만델라 전(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추진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 정책) 철폐와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렇고, 앞서 언급한 마타이 박사 등의 환경운동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활동이 그

렇습니다.

바야흐로 이런 조류는 세계 각지로 퍼져 시대 변혁의 물결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몇 해 사이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내전과 분쟁을 종결하고, 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도 순조로워 밝은 징조가 보입니다.

물론 다르푸르 지역과 소말리아 분쟁을 비롯해 빈곤과 난민문제 등 아프리카를 둘러싼 상황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 수준도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진척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앞 세대에게 이어받은 오래된 부채에도 굴하지 않고, 직면하는 과제에 서로 협력해서 가진 힘을 배증하는 방향으로 연대 대응할 기반을 조금씩 구축하는 사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처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의 열쇠는 아프리카가 쥐고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각국 지도자의 서약을 정리한 것으로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 안정된 경제 운영, 인간 중심의 개발 촉진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욕적인 도전을 국제사회가 온 힘을 다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는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4)가 요코하마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일본이 주도하며 유엔 등과 공동 개최해 1993년부터 5년 마다 열렸으며, 아프리카를 비롯해 각국의 수뇌와 국제 기구의 대표 등이 참가해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해 내가 특히 촉구하고 싶은 점은 '아프리카 청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관점을 모든 대책의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빈곤과 나쁜 환경 아래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세대를 초월해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청년층이 처한 상황의 개선'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친 상황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정순환(正循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TICAD에서는 기초교육 보급, 인재육성 거점에 대한 지원, 직업 훈련 등으로 인재육성을 추진했습니다. 그 실적을 토대로 새로운 주요 항목으로서 '아프리카 청년 파트너십 계획'을 마련하여, 청년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프리카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전할 담당자를 육성하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 세계 청년의 교류를 공고히 하면서 아프리카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지구적 문제군의 해결에 함께 대항하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연대'의 형성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요.

올해는 '일본·아프리카 교류의 해'이기도 하고 다양한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 앞으로 일본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청년과 학생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일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핵무기 비합법화'를 인류의 규범으로 북극의 비핵지대화가 급선무

군사 이용의 재연과 개발 경쟁에 대한 불안

마지막 셋째 주요 항목으로 '부전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제안하겠습니다.

나는 냉전 대립이 격렬하던 시대부터 군비 확장의 흐름을 저지하고, 긴장 완화를 꾀하기 위해 미소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함과 아울러 나도 직접 대화와 교류를 통해 민간외교에 노력했습니다.

미소 관계와 더불어 중소 관계가 악화됐을 때(1974~1975년)에는 세 나라를 잇따라 방문해, 저우 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코시긴 총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에 의한 전면 전쟁과, 세계를 분단하고 민중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쟁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냉전 종결로 그러한 위기는 이제 벗어났지만, 요 몇 해 사이에는 핵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언에서 나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실한 핵군축 이행을 확보하는 '국제핵군축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축 이행과 동시에 핵 폐절을 실현시키려면 '핵무기 비합법화'를 국제사회의 합의로 확립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제언에서 주의(注意)를 환기하고 싶은 점이 '북극 비핵지대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부터 캐나다 퍼그위시그룹이 주장한 내용으로, 도다(戸田)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 선언'을 가슴에 품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SGI도 이 취지에 찬동하고 지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북극해는 일찍이 냉전시대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동서 양 진영의 원자력 잠수함 항로로 군사(軍事)전략상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에 북극의 해빙(海氷)이 감소하고, 한층 더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두터운 얼음에 갇혀 있던 북극에서는 해상항로 이용이 어려워 해저 자원 개발은 쉽지 않았습지만, 온난화로 상황이 일변하면 해상항로 이용과 해저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각국이 이해(利害) 관계에 따라 크게 충돌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극은 군사 이용 금지를 비롯하여 인류의 공유 재산으로서 보호 체제 확립과 비핵지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에 의거해 군사용 금지 외, 남위 60도 이남지역에 모든 핵 폭발 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후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까지 확대되고, 지역 내의 핵무기 개발·제조·실험·보유·사용과 아울러 수송과 반입을 금지하는 조약이 다섯 지역에서 성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 범위가 남반구 육지의 대부분에 이르며, 아시아로 확대된 비핵지대는 각 지역에서 핵 확산의 억제 기능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합법화'를 향한 발판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핵지대 조약에 서명한 나라에다 비핵지위(非核地位)를 선언하는 몽골을 합치면 100개국을 충분히 넘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반수 이상의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조약 형식으로 위법화(違法化)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핵지대의 설치를 위해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핵무기 비합법화'를 인류 공통의 규범으로 삼자는 흐름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개발·취득·보유·사용 금지 등을 정한 '핵무기 금지 조약'⁶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 가자고 요망했습니다.

⁶ 핵무기 금지 조약

이 조약의 기초가 되는 것 중 하나로 법률가, 과학자, 군축전문가가 작성한 '모델 핵무기 금지 조약'이 있다. 1997년 코스타리카가 유엔에 제출해 토의문서로 배포됐다. 지난해 핵 확산 금지 조약(NPT) 재검토 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코스타리카가 다시 개정판을 제출해, 공식문서로 됐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우선 유엔이 중심이 되어 북극의 군사이용 금지와 비핵화를 정하는 '북극 비핵지대 조약'의 제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을 국시(國是)로 삼는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다른 나라들이나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북극의 비핵지대화를 향한 주도권을 발휘하기를 강하게 염원합니다.

또 이 접근은 북동아시아에서 핵 확산 금지를 고려하는데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견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서약하고, 6개국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완전포기'를 목표로 함과 아울러 '북동아시아에 비핵지대 설치'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와 비전을 향한 관계국과의 대화와 외교 노력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군축이든 핵무기 비합법화든 국제사회의 여론이 강력하게 후원하지 않는 한 현실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한 풀뿌리 차원의 대책으로서, 저는 2년 전 유엔제언에서 발표한 '핵 폐절을 향한 세계 민중의 행동 10개년'을 제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SGI에서는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 선언' 50주년 의의를 담아 지난해부터 '핵무기 폐절을 향한 도전과 인간정신의 변혁'전 국제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는 1980년대에 열린 '핵무기-현대세계의 위협'전이나 냉전종결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핵무기-인류에 대한 위협'전에 이은 형태로, 유엔이 주장하는 '군축·비확산 교육'을 민중이 직접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써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SGI는 이러한 의식계발 활동과 더불어 퍼그워시회의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단체나 조직과 손을 맞잡고 '핵무기 비합법화' 실현을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생명 존엄의 사상을 내건 불법자(佛法者)의 사회적 사명은 바로 핵 폐절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집속폭탄 사용을 조약으로 금지

둘째로 '집속폭탄 금지 조약'의 조기 체결을 주장합니다. 집속폭탄은 내장된 다수의 자(子)폭탄을

광범위하게 마구 뿌리는 무기로 목표대상이 된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할 뿐만 아니라, 일부가 불발탄으로 남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부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국·지역에서 약 4억 4000만 개의 자폭탄이 사용되었고, 10만 명이 사상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73개국이 계속 비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속폭탄의 사용과 제조, 비축 금지를 요구하는 NGO연합체 '집속폭탄 연합'이 2003년에 발족하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에 집속폭탄 금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회의를 오슬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후 대인지뢰 전면금지 조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집속폭탄 금지에 적극적인 나라들과 NGO를 중심으로 '오슬로 프로세스'라는 조약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속폭탄과 관련해서 이와는 별도로 '특정 통상무기 사용금지 제한조약'의 틀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오슬로 프로세스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연내 조약체결을 먼저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인지뢰 전면금지 조약이 성립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국뿐만 아니라 비가맹국에 대해서도 지뢰 사용을 단념하게 하는 인도적·국제법적인 규범이 되었듯이, 집속폭탄에 관해서도 같은 규범을 국제사회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후원으로 대인지뢰에 이어서 집속폭탄 금지 조약이 성립된다면, 틀림없이 다른 분야의 균축을 진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부전(不戰)의 조류를!

일·중 평화우호 조약을 체결한 지 30주년

끝으로 일·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동아시아에 '부전 제도화'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올해로 일본과 중국 간에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일·중 평화우호 조약 체결은 1974년 12월에 저우언라이 총리와 만났을 때에 저우 총리가 강하게 희망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으며 그 회견이 실시된 다음달에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견했을 때에는 일·중 우호에 거는 제 신념과 저우 총리의 마음을 전해 찬성의 뜻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75년 4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鄧小平) 부총리와 조약을 조기 체결하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 미키 다케오 총리에게 전언을 부탁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전언을 전달한 후, 정기간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8월, 조약이 조인되어 일·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추진되고 경제면에서 서로 깊이 의존하는 가운데, 이제는 1년에 473만 명이 왕래하고 무역 총액도 마·일 간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발전할 정도로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정치면에서도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일·중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지구적 규모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에 오셨을 때 저도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뵈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중·일 우호는 대세의 흐름이자 인심(人心)이 향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 지난달(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일행과 회담을 나누고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과 청소년 교류 등에 관한 공동문서에 합의했습니다.

일찍이 제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촉구한 지 40성상.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향해 크게 한 발 내딛게 된 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중 관계 호전과 맞물려 한·일 관계도 계속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3개국의 좋은 관계가 하나의 기초가 되어, ‘동아시아 서밋’에서 이룬 논의도 착실한 지역협조를 모색하는 장(場)으로서 정착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지난해 11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무장, 빈곤 감소 등의 목표를 내건 ‘아세안 헌장’과 2015년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향한 선언을 채택하여 지역통합을 위한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일·중·한 3국과 아세안이라는 양 바퀴가 평화와 공생의 방향으로 인내 강하게 계속 굴러간다면, 이윽고 동아시아에 '부전 제도화'가 실현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을 착수하여 중국과 한국, 그리고 아세안 가맹국을 중심으로 5년 동안 해마다 6000명의 청소년을 일본으로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청년 교류와 교육 교류를 민중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보다 한층 확대하기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한 사람으로서 계획이 대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대처방안을 단순한 교류의 기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엔의 모든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듣는 장을 열거나 유엔이 추진하는 환경 교육이나 군축교육에 관해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등, 청년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를 짊어진다라는 공통의식을 키우는 장으로 삼으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모두 청년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이 나와 대화를 거듭한 세계 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희 SGI는 "새로운 세기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힘이다."라는 도다 제2대 회장의 유훈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계속 청년에게 모든 빛을 비추면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민중의 연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1. 《생명의 세기를 향한 탐구》,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4권.
2. 《국가》 다나카 미치타로, 후지사 와 노리오 외 옮김, 《세계고전문학전집15 플라톤Ⅱ》 지쿠마쇼보 출판.
3. 《아인슈타인, 신(神)을 말하다》 윌리엄 허먼스 지음.
4. 《중력과 은총》 다나베 다모쓰 옮김, 지쿠마쇼보 출판.

5. 《소비에트여행기》 고마쓰 기요시 옮김, 이와나미쇼텐 출판.
6. 《와타나베 가즈오 평론 광기에 관해 외 22편》 오에 겐자부로, 시미즈 도오루 편저, 이와나미쇼텐 출판.
7. 《그러나 바다는 넘치지 않고(하)》 아사히신문사 출판.
8. 《인류의 성서》 오노 가즈미치 옮김, 후지와라쇼텐.
9. 《불교백화》 마사타니 후미오 지음, 지쿠마쇼보 출판.
10. 《유럽에 고하다》 사토 고이치 옮김, 《토마스 만 전집 11》 신초샤 출판.
11. 《파이돈》 후지사카와 노리오 옮김, 《세계고전문학전집 14 플라톤 I》 지쿠마쇼보 출판.
12.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스기 가쓰지, 니이가키 세이쇼 옮김, 미네르바쇼보 출판.
13. 《21세기의 인권을 말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04권.
14. 《인간개발보고서 2006》 고킨쇼인에서
15. 《인간개발전략 공생을 위한 도전》 우에무라 가즈코 외 옮김. 넛폰효론샤 출판.